

프로축구 울산현대 vs 전북 현대, 다시 불붙은 우승 경쟁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와 울산현대의 경기에서 전북현대모터스 한교원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울산, 15년만의 정상 탈환 vs 전북, K리그 첫 4연패 도전 지난해 최종 라운드에서 희비 갈려 전북에 역전 우승 내줘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였던 프로축구 K리그 1(1부리그) 우승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북 현대는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울산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21라운드에서 바로우와 한교원의 연속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최근 세 경기에서 1무2패로 주춤했던 전북(14승3무4패 승점 45)은 4경기 만에 승리하며 울산(승점 47)과의 승점 차를 2로 좁혔다. 최대 승점 차가 8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고비에서 전북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다시 한 번 울산을 잡았다. 전북은 지난 6월 첫 대결에서도 2-0으로 승리했다. 울산 입장에서 우승 굳히기에 돌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다. 8승3무로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전북의 벽은 높았다. 이겼다면 승점 차가 8로 크게 벌어져 울산의 전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상 등극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2라운드까지 정규 라운드를 마치면 이후 팀당 5경기를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를 갖는다. 그룹A(1~6위)에 속하는 울산과 전북은 한 차례 더 대결해야 한다. 두 팀이 남은 경기에서 같은 승점을 쌓는다고 가정하면 두 팀의 마지막 승부를 통해 우승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지난해 데자뷰가 일어날까. 사상 첫 K리그 4연패를 노리는 전북은 '어게인 2019'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울산에 지난해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선두에 있던 울산이 최종 라운드에서 전북에 역전 우승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승점이 나란히 79로 같아 다득점에서 갈렸다. 전북이 72골, 울산이 71골로 전북은 한 골 차로 극적인 3연패를 달성했다. 전북은 지난날 말 국가대표 풀백 김진수가 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해 전력 누

수가 상당했다. 선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축 선수의 이탈이 주는 전력 공백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다. 이적 이후 3경기에서 1무2패로 하락세를 그렸지만 가장 중요한 일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울산을 압박함과 동시에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올해 울산과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자신감도 한층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득점 1위 주니오를 벤치에서 대기시키고, 원두재를 스리백의 가운데에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찾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전북을 만나기 전,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친 장면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승점 차를 더 벌리지 못해 전북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울산은 오는 20일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전북은 같은날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한다. K리그 사상 첫 4연패에 도전하는 전북과 15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울산의 우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뉴스

'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발렌시아 최연소 한경기 멀티 기록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발렌시아)이 유럽 주요리그를 대상으로 한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의 스페인어권 채널 'ESPN 데포르테'는 16일(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주말 벌어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경기를 대상으로 베스트11을 선정했다. 이강인은 4-4-2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투톱에 올랐다. 이강인은 14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반테와의 2020-2021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2도움을 올리며 발렌시아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레반테가 달아날 때마다 추격을 알리는 소중한 도움이었다. 2018-2019시즌 라리가에 데

뷔한 이강인의 통상 첫 도움이었다. 또 19세207일의 나이로 라리가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21세기 이후 발렌시아 소속 선수로는 최연소 한 경기 멀티 도움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은 후안 마타(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2008년 20세150일의 나이로 도움 2개를 기록했다.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레반테)가 이강인이 투톱을 형성했다. 윌리안(아스날), 테지 사바니어(몽펠리에), 제프 핸드릭(뉴캐슬),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미드필더 진영에 섰고, 앤드류 로버트슨(리버풀), 에메르송(레알 베티스), 웨슬리 포파나(생테티엔), 스콧 맨(크리스탈 팰리스)이 최고 수비라인으로 선정됐다. 스티브 만단다(마르세유)는 최고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이번 주말에 개막한다.

류현진·김광현, 환상적인 투구 실력...미국 언론 주목

콜투더펜 "한국 야구 대표" 소개
"류, 가치 증명...토론토에서 성과"
"김, 선발 5경기 평균자책점 0.33"

"한국 야구팬들이 류현진과 김광현의 투구를 보고 열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 매체 콜투더펜은 16일(한국시간)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좌완투수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대해 소개했다. 매체는 "김광현과 류현진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투더펜은 "류현진은 위대한 메이저리거 중 한 명이다. 류현진은 4년 8000만달러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평균자책점 3.00으로 지난해의 성적을 재현하지 못했지만 토론토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어 "류현진은 LA 다저스에서는 클레이튼 커쇼와 워커 블라데에 가려졌지만, 토론토에서 자신이 중요한 선수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스포츠넷은 "류현진이 5일을 쉬고 등판한다면 오는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26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다. 10월2일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 출격한다"고 예상했다. 토론토가 포스트시즌 티켓을 획득하고, 류



현진을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등판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광현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콜투더펜은 "김광현은 KBO리그에서 12시즌 동안 뛰고 세인트루이스에 왔다. 시즌 팀의 마무리투수로 나왔지만 이후 선발로 나온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33을 기록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선발 5경기 기록 중 두 번째로 낮은 평균자책점"이라고 설명했다. MLB닷컴은 김광현의 최초 기록을 전했다. "김광현은 4경기 연속 선발 등판해 매 경기 '5이닝 이상·3피안타 이하·비자책점'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다"고 말했다. 김광현의 팀내 입지는 격상됐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라디오 매체인 '101 ESPN'은 이날 "세인트루이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진출한다면, 김광현이 3선발이 되어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세인트루이스가 포스트시즌에 오를 확률은 78%다.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잭 플래히티와 애덤 웨인라이트에 이어 김광현이 3선발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김광현은 올해 정규 시즌에서 두 번 정도 더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친다면 신인왕 수상 가능성도 충분하다.

'KPGA유일'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24일 개최

이수민·김한별·문경준 출전

2020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KPGA 유일의 인비테이셔널 대회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주 페럼 클럽에서 개최된다. 5회째를 맞이하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은 '선수와 갤러리를 위한 대회'라는 목표 아래 골프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왔다. 올해 대회는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무관중 대회로 진행된다. 현대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KPGA 투어 대회들이 속속 취소되는 와중에도 남자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회 개최를 결심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이수민과 20년 만에 코리안 투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김한별, 올 시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함정우, 문경준 등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KPGA 선수권대회에서 월요예선 통과 후 본격적인 우승을 이뤄낸 김성현과 매경오른에서 대회 최초 2연패를 기록한 이태희도 시즌 2승을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뉴스

현대해상의 추천 선수로 참가하며 성장해 투어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한 서요섭, 이재경도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은 올해 남자 선수들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PGA 투어급 수준의 코스 세팅도 마쳤다. 대회장인 페럼 클럽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코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페어웨이를 좁히고, 깊은 러프와 빠르고 단단한 그린을 준비했다. 또한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코로나19 방역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연습라운드부터 최종일까지 일일 2회 방역은 물론 식당 등 많은 인원이 거쳐가는 공간은 수시로 방역을 진행한다. 대회장은 사전 등록 인원만 방문할 수 있고, 방문일 오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하고 발열체크, 검역 완료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총상금 10억원은 60위 이내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컷 통과 선수 중 61위 이하 선수들에게는 별도의 재원으로 삼금 예비비를 지급한다. 뉴스

KBO 신인 드래프트, 오는 21일 비대면 방식 개최한다

지명 순서, 2019년 팀 순위 역순 롯데-한화-삼성-KIA-KT-NC-LG-SK-키움-두산 순



지난해 열린 2020 신인 드래프트 모습.

KBO(총재 정운찬)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

업 예정자 856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133명이다. 이 중 라운드 별로 구단 당 1명,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아쉽게도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수의 구단 관계자만 참석할 가운데 최소 운영 인력으론만 진행된다. 지명 대상 선수 및 가족들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며, 미디어의 현장 취재와 야구팬들의 관람도 불가하다. 선수 지명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 명단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는 스포츠 채널 MBC SPORTS+와 유튜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생중계 된다. 뉴스